

外國刊行物 日本偏向 심하다

작년 1,470種중 85% 1,240種 차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경쟁시대에는 외국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중요한 정보 소스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의 신문과 잡지들은 몇 가지나 되며 또 그 유통량은 얼마나 될까. 문화공보부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신문과 잡지의 수는 모두 1천4백70종이며 소위 이 해외정보를 수입하는데 든 금액은 4백55만4백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억5천만원.

그런데 이들 외국의 신문잡지들은 특히 경제관계신문잡지가 가장 많고 또 그중 대부분은 日本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사회의 정보획득의 루트가 日本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한해동안에 수입된 1천4백70종의 신문과 잡지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천2백40종이 日本에서, 그리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2백30종은 歐美 등 기타지역에서 들어왔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요 日刊신문으로는 美國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英國의 「더 타임즈」, 「프랑스」의 「르 몽드」, 西獨의 「디 벨트」, 日本의 「朝日新報」, 「讀賣新聞」, 「毎日新聞」 등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의 「노이에 쥐리허 짜이팅」, 「아랍뉴스」, 「사우드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특수지역의 신문들도 다양하다.

그리고 전문일간지로는 美國의 「월 스트리트 저널」, 英國의 「파이낸셜 타임즈」, 日本의 「日本經濟新聞」 등 경제전문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 주간 및 월간잡지로는 매주 5백80만부가 발행된다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 「뉴스위크」, 「프랑스」의 「렉스프레스」, 西獨의 「슈피겔」 등 시사주간지 10여종이 있고 월간지로는 「文藝春秋」, 「主婦의 友」, 「婦人公論」, 「婦人구락부」 등 주로 日本에서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신문과 잡지들의 판매부수를 보면 신문의 경우는 日本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것도 경제전문지가 상당량을 차지하며 주간지로는 英字誌가 많이 구독되고 있다.

韓國出版販賣株式會社 宇一文化社 東洋物産 東南內外貿易 敎保文庫 등 외국의 신문과 잡지를 수입 보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일간신문은 日本의 「讀賣新聞」으로 5백부가 나간다. 이밖에 「朝日新聞」 4백부, 「산케이신문」 3백부, 「뉴욕 타임즈」 1백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0부, 「워싱턴 포스트」 「每日新聞」 각 60부, 「더 타임즈」 25부, 「르 몽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각 20부, 「아랍뉴스」 10부등이다. 한때 英國의 「더 가디언」, 「프랑스」의 「르 피가로」, 西獨의 「더 벨트」지 등도 들어왔으나 지금은 구독신청자가 줄어들어 거의 중단상태라고 한다.

경제전문지로는 日本의 「日本經濟新聞」이 1천2백부가 들어와 일간신문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讀賣新聞」을 크게 능가한다. 이 밖에 경제전문지로 英國의 「파이낸셜타임즈」도 1백여부가 들어오는데 日本에서 들어오는 「日刊工業新聞」 「日本工業新聞」 「日本纖維新聞」 「織研新聞」 「化學工業新聞」 등 특수공업경제신문의 보급부수도 모두 합하면 2백여부가 된다.

한편 해외의 주간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美國의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誌. 「타임」誌 수입공급처인 宇一文化社와 「뉴스위크」誌 공급처인 敎保文庫에 따르면 「타임」이 3만4천5백부, 「뉴스위크」가 1만8천부나 되어 웬만한 국내잡지들의 발행부수를 능가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월간종합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우리나라에서 1만2천부가 나간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본사에서 1천8백만부가 발행되고 현재 한국어를 포함, 40개국에서 16개언어로 번역발행되고 있다.

이밖에 잡지수입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日本의 「文藝春秋」 5천부, 「主婦의友」 4백부, 「婦人구락부」 3백부, 「婦人公論」 1백20부가 들어온다.

이밖에 경제전문지가 역시 많이 팔리고 있어 美國의 「비즈니스」가 7백부, 英國의 「이코노미스트」가 6백50부나 수입된다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또 교육잡지인 日本의 「總合敎育技術」이 3백30부, 「프랑스」의 주택잡지 「리메종 프랑세즈」가 2백부 들어오고 있어 특히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에서 날이갈수록 해외정보의 입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간다고 수입업체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편 과학이나 의학 특수한 분야의 정보 등은 외국의 학회지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입수하는 경우도 많지만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볼 때는 아직도 日本의 신문잡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다.